

도뇨관, 요실금 관리 돌봄 전문가 온라인 교육 도뇨관, 요실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09월 20일(화) ~ 09월 21일(수) 2일간

초대의 글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입원환자 병원감염의 40%는 요로감염이고 요로감염의 80%는 도뇨관 관리 잘못에서 비롯됩니다. 국제요실금학회는 도뇨관, 요실금 관리의 통합적 접근을 권장하면서 ▲도뇨관, 요실금 전문 간호사에게 초기 관리에 대한 책임 부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연계 ▲간호사 및 보건·사회복지 전문가들을 위한 공인된 교육·훈련 과정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체계적 돌봄을 제공하는 통합관리 시스템과 전문가를 위한 공인된 교육 훈련과정이 없어 요로감염 등 합병증에 대한 예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도 인구 고령화에 따른 관리 대상환자의 증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에서는 비뇨의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본 협회 교육위원들이 돌봄 전문가 중급 교육영상 보다 구체적인 지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요양원,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의 간호사, 일반 의사 등 의료진을 주 대상으로 하는 고급 교육프로그램(PPT, 동영상을 이용한 강의와 직접 자가 도뇨관 삽입, 유치도뇨관 관리, 콘돔카테터 착용/제거 방법 등에 대한 실습으로 구성)을 개발하였습니다.

시청각 교육을 통한 보다 체계적인 배뇨질환 및 요로감염 관리를 하고 향후 교육 효과 및 효용성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분석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건 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 후에도 돌봄제공자들이 환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생기면, 교육을 시행 한 교수님에게 언제든 전자메일로 문의하면 회신해 드리고 질문사례를 모아 모든 돌봄제공자에게 배포하여 공유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지 않아 교육이 비대면으로 시행되지만 대면 교육에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장 김 세 철

행사개요

| 일 시 | 2022년 9월 20일(화) ~ 9월 21일(수) 15:00~17:00

날짜	좌장	질의응답
5기 9월 20일(화)	최현섭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배상락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6기 9월 21일(수)	김태형 (중앙대학교병원)	방우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 장 소 | 온라인 개최

| 대 상 | 돌봄 전문가(간호사, 일반 의사 등 의료진)

| 주최/주관 | 사단법인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

| 등 록 비 | 무료

| 신청방법 |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 홈페이지(<http://www.kphc1995.or.kr>)

돌봄서비스 온라인교육 클릭

| 사전등록 | 1기당 100명 선착순 마감

교육 프로그램

강의
(45분)

배뇨장애와 요실금 그리고 도뇨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Part
A

배뇨 기능, 장애의 이해

1. 배뇨 기능의 이해

2. 배뇨장애의 원인과 증상, 진단, 치료

Part
B

도뇨관(비뇨기계 카테터)의 관리

1. 카테터 관리 교육의 필요성

2. 카테터의 종류, 적응증, 삽입 및 관리 방법, 합병증

동영상 4편
(10분)

1. 남성자가도뇨관리

2. 여성자가도뇨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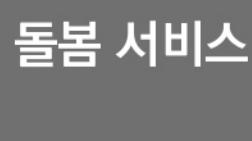
3. 방광세척

4. 카테터 및 소변주머니 관리

질의응답
(60분)

Zoom을 이용한 온라인 실시간 질의응답

- 강의 후 기본 지식 습득 평가(온라인 테스트 객관식 10개 문항)를 통해 80점 이상 득하신 분은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2021년도 발급률 99.7%, 총 응시자 677명 중 675명 발급)
수료증은 이수 후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합니다.
- 참석자 중 설문조사에 응대 주신 분은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 Zoom 접속 정보는 등록자에 한하여 배포됩니다.



사단법인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 배뇨장애 요실금 관리 돌봄 서비스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G5센트럴 프라자
대표전화 | Tel. 02-534-2214 이메일 | eurology@hanmail.net